지역 소식통

정읍시보건소, 구강보건 이동버스 신규도입

정읍시보건소가 만족도 높은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강보건이동버스를 새로 구입하고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4인승 대형 버스를 구입하고 기자재 등을 완비해 운행준비를 마쳤다. 기존 구강보건이동버스는 2009년부터 14년 동안 구강관리 취약 지역에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었다.

새롭게 탄생한 구강보건이동버스는 구강관리 취약지역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다솜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각 생활터에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상반기에만 운영하던 치과 무의면 지역 구강이동교실 사업을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등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부안군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연말(~2024.12.31.)까지 한시적으로 측량수수료를 30~9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감면대상 사업자는 군(읍·면)에서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대상이며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카드)를 갖춰야 한다.

또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은 3개월 이내 재의뢰는 90% 감면, 6개월 이내 재의뢰는 70% 감면, 12개월 이내 재의뢰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 지적측량 접수창구(☎063-777-3758),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심원면 하전권역 선정
국·도비 등 사업비 100억원 확보… 정주여건 개선지원 등

국내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로 알려진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의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심원면 하전권역(동전·서전·상전·용기마을)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 등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어촌돌봄스테이션과 주거스테이션, 리폼스테이션(패류껍질 처리기) 설치, 마을골목안길 경관개선 등이 이뤄진다.

또 안전감시시설, 무선방송시스템, 트랙터 주차장, 용기포구 정비 등 하전권역의 자연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어촌마을에 청년과 귀어인구유입을 위한 주거기반과 어촌생활권 문화복지시설조성 등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3가지 유형(경제기반, 생활기반, 안전기반시설)으로 이뤄진다. 고창군은 지난해 10월 예비계획서 접수 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이후 어촌 생활기반(플랫폼) 사업 부문에 하전권역이 최종 선정됐다. 고창의 하전권역은 국내 바지락 생산량 50%가 생산되는 주산지이며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등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종합테마파크와 고창갯벌지역센터에 이은 해안권 개발사업의 또 하나의 쾌거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생활환경 개선 및 어업기반시설을 구축해 활력 넘치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北 도발에 따른 민방위 시설 사전현장점검

대피시설 19개소·비상급수 5개소·경보시설 14개 등

고창군에 따르면 비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해 12일까지 긴급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창군이 민방위 시설 사전 현장점검에 나섰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비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긴급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일제점검 대상은 고창군 대피시설 19개소와 비상급수 5개소, 경보시설 14개 등이다.

점검은 각 읍·면에서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군 안전총괄과에서 2차 점검을 실시해 점검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주도면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즉시 수정할 것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 자금을 신속히 마련해 대비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민들은 평상시와 같이 생업에 집중하면서 비상 사태시 방송을 청취하고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비상사태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평상시 우리의 준비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과언이 아니다"며 "군은 민방위 시설과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보건소-부안군치과의사회, 노인의치사업 업무협약

부안군보건소는 지난 10일 부안군치과의사회(회장 이의경)와 노인의치(틀니)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노인의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의 의치(틀니) 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 의치 시술 및 장착, 1년간 무료 사후관리 등이다.

지원 신청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며 협약된 관내 12개 치과의원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의치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시 틀니 불가 판정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박찬병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구강 보건 서비스 향상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실 전경 〈사진=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농산물 잔류농약 사전 차단

2022년 556·2023년 889건 분석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

정읍시가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득에 직결되는 만큼 친환경 농업을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산물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조치 및 공익직불금 최대 40%감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출하 전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463성분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농약안전사용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실제로 2022년 556건, 2023년 889건을 분석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정읍농산물의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 숙련도(FAPAS)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에 참여해 2년 연속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주연 기술보급과장은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현장 맞춤형 농약안전사용 교육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14일 전 농산물 시료(1~3kg)와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등)를 지참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방문 신청하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마을 제설봉사자 유류비 등 지원 검토"

심덕섭 고창군수가 "각 읍·면 마을에서 활동하는 제설봉사자들의 유류비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14개 읍·면에 224명의 자발적인 제설봉사자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1~22일 고창 전역에 20㎝ 넘게 눈이 쌓이면서 대중교통 이용 등이 제한되자 제설봉사자들이 영하의 혹한에도 새벽부터 종일 눈을 치웠다.

이에 고창군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으로 제설봉사자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감사의 의미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제설작업 관련, '인도전용 제설기'를 구입해 고창읍 일부 인도에 시범 운영하고, 향후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마을 진입로 제설작업에 솔선수범해 주시는 제설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한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